주일예배 및 모임안내

Hope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WELCOME
WORSHIP
DISCIPLESHIP

[Matthew 11:28-30]

주일1부예배	아가페홀	9:00 am
주일2부예배	본당 & 라이브	11:00 am
Youth	아가페홀	11:00 am
주일학교	본당 지하	11:00 am
화요소망학교	본당 지하	11:00 am
수요예배	본당	7:00 pm
AWANA (수)	아가페홀	7:00 pm
새벽예배 (화-토)	본당	6:00 am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성직 목사	**은퇴장로**	김대희 임병갑 백근조 이덕흥 이창진 윤순화 오귀록
방송/교육	오정훈 목사	**협동장로**	전세환
소망학교	이신웅 전도사	**찬양인도**	공석우 류충환
청년부	청빙중	**지휘자/서무**	박은실
중고등부	문강한 전도사	**반주자**	노윤실사모 김성은사모 김은화 이화니
주일학교	김성은 사모	**번역/통역**	김예람 이화니 박정효
시무장로	백형수 윤순기	**방송**	조준한 Daniel Sewell 조희수

열방을 섬기는 이들

중 국	이주애	**NIM 북한 선교회**	임현석
케 냐	이영규	**도미니카**	이광호
칠 레	황신재	**아파치인디안**	강원용
모로코	김영목	**키르키즈스탄**	바나바/다비다
요르단	설총호/전경원	**아이오와 다민족**	서정호

세인트루이스 한인소망교회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of St. Louis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Church (314) 275-2661 Email HopeSTL@gmail.com
www.HopeSTL.org Agape Hall (314)786-5018

12.15.2024

HOPE CHURCH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경배와 찬양	찬양팀 (15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 기원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시교독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Advent (3)
참회의 기도	이사야 Isaiah 1:18
찬송	찬 29장 성도여 다함께 다같이
기도	백형수 장로
광고	인도자 / 김성직 목사
봉헌, 봉헌찬송	찬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다같이
봉헌기도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성경봉독	**베드로후서 2 Peter 3:1-18**
말씀	**우리들의 ID (14): 사랑하는 자들아!** / 김성직 목사 **Our ID in Christ (14): Beloved!**
*결단의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 축도	김성직 목사

* 일어서서 Please stand up

확신을 부추기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 감정들이나 그리스도인으로의 경험들을 구원의 증거로 삼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보다 우리의 감정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감정들로 인해 자신을 치켜세우고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보다 우리의 감정을 더 믿는 것이 된다. 우리의 감정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그리고 우리의 놀라운 감정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기를 기대할 때 우리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비도덕적인 무신론자들보다 더 악한 영적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12.겉모양만 그리스도인

-하나님만이 분별하시는 가짜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명확하게 분별해 낼 수는 없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사람들의 외적 모습들뿐이다. 겉모습만으로는 결코 그 사람을 오류 없이 판단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신앙이 아주 좋아보였던 사람들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즉 겉모습만 봐서는 아무리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도 속을 수 있다.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죄에 대한 애통함, 하나님에 대한 순종, 겸손, 감사, 기쁨 그리고 열심 등 모든 종류의 영적 감정들을 모방하는지 보아왔다. 이렇게 모방된 감정들은 동시에 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기독교 진리에 해박한 지식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격,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언어로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때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은 너무 닮아서 사람은 이들을 구분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분별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도 성도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영적 감정들이나 경험들을 감동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비슷하게 닮은 것은 무엇이든 성도들을 감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고대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회심 사건이나 칭찬할 만한 긍정적인 영적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면 감동을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의 회심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느 누구도 입증하지 못한다.

-삶의 열매로 판단하라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조나단 에드워즈)

제2부 감정에도 거짓이 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을 한 권 나눕니다. 물론 이 역시 완벽한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 안에서도 올바른 믿음과 대각성이 주 안에서 꼭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그렇듯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구원에 대한 거짓 확신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

자신의 삶 속에 회심에 대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다. 이들의 의심은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는 편견과 하나님의 자비의 실재와 능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긴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둡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상황 때문에 확신이 부족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왜 고통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와 같은 의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에 대한 의뢰심이 부족한 데서 생긴다.

그러나 마음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고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그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런 마음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확신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이미 저문 해의 햇빛을 보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죄악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면 한때 가졌던 믿음의 경험들로 구원의 확신을 계속 지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우리 마음이 어둠에 휩싸여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한번쯤 구원의 확신을 의심해 보는 것도 좋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을 때 자신에 대한 염려는 더 커진다. 이처럼 영적 암흑의 시간을 맞이했을 때, 스스로에 대한 걱정 근심이 죄를 멀리하게 하고 새로운 영적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촉매제가 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마음이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세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일이 된다. 만약 이렇게 사는 것이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삶이요, 우리의 감정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즉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격려하는 것은 그들의 거짓

성시교독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Advent (3)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다같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리들의 ID (14): 사랑하는 자들아! (벧후 3:1-18)

<본문 속으로>

1. 노년의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3장에서 성도들을 계속해서 무어라 부릅니까? (1절, 8절, 14절 17절)

2. 베드로 사도는 어떤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이 두 편지를 쓰고 있나요? (1절)

3. 베드로 사도는 또 어떤 말씀과 어떻게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나요? (2절)

4. 베드로 사도가 이 한 자리를 잊지 말라 라고 말한 것은 무엇인가요? (8절)

5. 결국에는 오직 무엇이 우리의 구원이 되나요? (15절)

SATURDAY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2. 담임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과 권능을 주셔서, 귀한 영의 양식을 말씀으로 능력있게 전하고 주님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게 하소서.
3. 모든 리더쉽들에게 항상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반석 위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풍성한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SUNDAY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1.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2.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의 선하심을 내 안에서도 점점 회복해 나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3.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로 주께 납작 엎드러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

안성실 권사님: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이십니다.

이창진 장로님: 무릎 수술 후 회복중이십니다.

오정일 집사님: 무릎동맥수술 후 재수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Charles Biesen (김기홍 권사님 남편): 심장 수술 후 회복 중이십니다.

MONDAY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하소서

오직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께서 옳다 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2.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점점 맺히게 하소서.
3.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반면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소서.

TUESDAY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부모인 내가 먼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소서.
2. 하나님만이 중심 되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되게 하소서.
3. 성경적 가정의 모범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순응하게 하소서.

WEDNESDAY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주께서 맡겨주신 자리이기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2. 성경 말씀에 기초한 선택과 집중으로 학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3. 세상과 아무런 마찰이 없이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THURSDAY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1.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소서.
2. '코로나19'을 지나가며, 각 나라와 민족들이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3.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흩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FRIDAY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소서

1.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2.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아 거룩한 계보를 이어서 교회와 민족과 맡겨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3. 흔들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뜻을 정하게 하소서.

<생활 속으로>

1. 주의 사랑 받는 우리들의 ID는,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늘 돌아보고, 맡겨주신 이들 역시 제대로 돌보는 진실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과연 창조 본연의 그 진실한 마음과 성품이 어떻게 회복되어가고 있는지,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성을 돌아보고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는지, 내게 맡겨주신 이들을 나는 어찌 돌보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보세요.

2. 주의 사랑 받는 우리들의 ID는, 창조와 심판 사이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알아가는 말씀 안에 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전하고 계시는 시작과 끝의 진리를 나는 어떻게 기억하며 사는지,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도 여전히 내 세상살이에 집중하지는 않는지, 혹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 죄성을 자꾸 까먹고 사는건 아닌지, 나는 말씀 안에서 점점 성장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3. 주의 사랑 받는 우리들의 ID는, 내 생애 연약한 순간 속에도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며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티끌 같은 인생 가운데 나는 진정 무얼 붙잡고 사는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만이 하나님이신데, 여적 무엇을 나의 구원으로 여기며 살아왔는지, 주의 오래 참으심 앞에 나는 지금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함께 얘기해 보세요.

예배를 섬기는 이들

	12/15		12/22
대표 기도	백형수 장로	대표 기도	오귀록 장로
교회 안내	송계자 권사	교회 안내	신정자 권사
번역/통역	이화니 자매, 박정효 형제	번역/통역	김예람 자매, 박정효 형제
애찬 담당	모로코 구역	애찬 담당	II 조
교회 청소	도미니카 구역(12월)	교회 청소	도미니카 구역(12월)

향기로운 예물 12/8/2024

주일	$1,270	건축	$50	주일학교/유스	$1
십일조	$2,690	첫열매	$0	특별 연금 헌금	$200
감사	$550				
선교	$0				
구역선교	$400			헌금총액	$ 5,161.00

헌금 외 수입금

입금총액 $ 5,161.00

교회헌금 KHPC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온라인 HopeSTL.org/online-donation

1. 제직회총회
오늘 식사교제 후 1시에는 본당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직회총회가 있습니다. 제직들은 참석해 주세요.

2. 성탄주일
다음 주일은 (12월22일) 성탄주일로 예배드립니다.

3. 연말공동의회
다음 주일 2부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연말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주세요.

4. Christmas Day Worship
12월25일(수) 성탄절 당일에는 10AM에 본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기쁨의 경배를 아기 예수님께 드립니다. 특별하게 찬양이나 순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싸인업 해주세요.

5. 2025년 교회 달력
2025년 교회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꼭 챙겨가셔요.

교우동정

처음 나오신 교우님들을 환영합니다!
Keith (Paco 파코) Sutherland

교회행사

12월 15일 (주)
제직회 총회

12월 22일 (주)
성탄주일예배
공동의회

12월 25일 (수)
Christmas Day
Worship
@10AM

12월 29일 (주)
송년예배

12월 31일 (화)
송구영신예배
성찬식 @11PM

기도구역 케냐 구역 (윤순기 장로 신상란 권사)과 이영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가정 조재연 집사(이윤희 집사) 가정 위해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가정이 되도록